

정승성, 『중국 벼 역사 연구』 (북경: 중국농업출판사, 2018). 381쪽 [曾雄生, 『中国稻史研究』 (北京: 中国农业出版社, 2018).]

두신하오(杜新豪)†

쌀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 작물로, 지구상의 인구 절반 이상이 쌀을 먹는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쌀 생산국 중 하나로, 쌀 생산량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전 인구의 65% 이상이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다. 2004년 유엔은 “쌀이 곧 생명(Rice is Life)”라는 주제로 “국제 쌀의 해(International Year of Rice)”를 발족했다. 특정 농작물에 대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유엔 역사상 첫 번째 사례로, 쌀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재배 벼(cultivated rice)의 기원지로, 만 년 이상의 벼 재배의 역사를 자랑한다. 중국 문명이 태동하던 초기부터 벼는 남방 사람들의 주식 작물이었고, 북방의 조(millet)와 함께 “남벼북조(南稻北粟)”의 농업 생산 구조를 형성했다. 서기 1000년 전후, 중국 경제의 중심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벼는 가장 중요한 곡물 작물이 되어, 중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부양했다. 17세기 초반, 『천공개물(天工開物)』(1637)의 저자 송응성(宋應星)에 따르면, 당시 중국 인구의 70%가 이미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었다. 쌀이 곡물 중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남송 시기부터 “소주(蘇州)와 호주(湖州)에서 벼가 풍작이면, 전 중국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

중국과학원 자연과학사연구소의 정승성(曾雄生) 연구원은 중국의 저명한 농학사 전문가이다. 그는 문헌 연구에 기반하여, 중국 벼 재배 역사, 특히 송대 이

---

† 중국과학원 자연과학사연구소 청년연구원, duxh@ihns.ac.cn / ✉ 번역: 신의연, 한일장신대 학교, grace@hanil.ac.kr

래 벼가 주요 작물이 된 이후의 역사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 연구 결과는 『중국 벼 역사 연구』라는 책으로 집대성되었다. 이 책은 근래에 출간된 중국 농업사 연구의 중요한 역작 중 하나로, 중국사회과학원의 리건판(李根蟠) 연구원은 이 책을 “후속 연구자들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저작”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벼 역사 연구』는 정승성 연구원이 직접 자신의 벼 재배 역사 논문들을 선정하여 엮은 논문집이다. 이 책은 중국농업출판사 “중국 농업 역사 연구 총서(中國農史研究叢書)” 시리즈에 포함되어 2018년 4월에 출간되었다. 책에는 저자가 지난 30여 년간 발표한 전문 학술논문 20편 이상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벼 역사 총론”, “벼농사 농기구”, “벼 역사 문헌”, “경작 제도”, “벼 품종”, “벼농사 환경과 벼농사 문화” 등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논문들은 발표된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다. 이 논문들은 기존 선행연구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문제를 탐색하거나, 연구의 공백을 메우거나,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였다. 기술사의 큰 흐름과 자연환경, 정치 제도, 사회 경제, 사상 문화 등의 넓은 배경 속에서 벼농사를 고찰하여, 송대 이후의 새로운 벼 재배사를 서술하였다.

북송과 남송 시기 인구의 남천(南遷)과 경제 중심의 남하와 더불어, 장강 중하류 지역의 농민들은 물길을 바꿔 농지를 만들거나 산을 개간하였다. 주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기존에 벼 재배에 적합하지 않았던 토지를 벼 재배지로 확장시켰다. 이들은 벼의 이기작(double harvest rice)과 벼와 밀의 이모작(double cropping of rice and wheat)을 통해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곡물 생산을 제고시키려고 하였다. 호핑티(何炳棣, Ho Ping-ti)를 대표로 하는 선학들은 조생이면서 가뭄에 강한 참파벼(占城稻, Champa Rice)의 도입으로 벼 재배가 저지대에서 구릉지로 확대되고 계단식 논 경작이 널리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로써 다모작이 보급되고 녹색혁명이 출현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송대에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할 수 있었다고 여겼다. 그러나 본서의 저자는 송대 이후의 식량의 공급과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은 산지 개간이 아니라 물과 싸워 경작지를 확보한 것에 있다고 보았다. 즉 송·원대 이후 벼농사 발전의 실제 상황은 벼의 재배가 저지대에서 한층 더 저지대(예를 들면, 위전(圩田)과 가전(架田))을 향하여 확장하였다는 것이다. 저자는 신중하게 문헌을 정리한 후, 물에 강하고 조숙(早熟)이 가능한 황록벼(黃稭稻, Huanglu

Rice)가 참파벼보다 실제 중국의 식량 생산과 인구 증가에 더 긴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벼농사 제도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벼-벼 이기작과 벼-밀 이모작과 같은 일년이숙제(一年二熟制)의 보급이 송대 강남 지역의 농업혁명을 가져왔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서의 저자는 이를 다시 검토함으로써, 송대 문헌 속의 조도(早稻)와 만도(晩稻)라는 명칭은 오늘날의 의미의 벼-벼 이기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수확 시점이 빠르거나 늦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었고, 조도와 만도는 대부분의 경우 복수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주로 벼의 품종, 계절과 노동력의 모순, 물과 비료 등 요인의 제약으로 인해 송대의 이기작 재배 면적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송대 벼와 밀의 이모작에 관한 사료를 검토하여, 일부 밀과 벼의 이모작 관련 사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벼와 밀은 대부분 서로 다른 지역에서 따로 재배되었고, 일반적으로 고지대에서 밀을 재배하고 저지대에서는 벼를 재배했으며, 이 둘은 이모작(복합) 재배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저자는 송대 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벼와 밀의 이모작(복합) 재배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보편적이지는 않았으며 성숙한 경작 제도로서 정착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 책은 벼-벼 이기작과 벼-밀의 이모작 재배 체계에 대한 연구로, 송대 벼농사의 발전 수준을 재평가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송대 경제와 전반적인 생산력 발전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유익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명청 시기 남방 지역의 벼농사 기술은 이미 완전히 정형화되어 중대한 변혁(突破)이 없었으며, 농민들은 주로 벼의 병충해 예방 및 대응에 집중했다. 본서의 저자는 명말 송정(崇禎) 연간인 1630년에 편찬된 『송강부지松江府志』에서 서광계(徐光啓)가 쓴 『고향리문(告鄉里文)』을 발견했다. 이 문헌은 기존 『서광계집(徐光啓集)』에 수록되지 않았으며, 학자들에 의해 인용하거나 연구된 적도 없었다. 이 책은 『고향리문』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홍수 이후에 새로운 벼 품종을 찾아 뿌리는 방법, 벼 모종을 구매해 보종(補種)하는 방법, 수차(水車)를 이용해 논의 물을 빼는 방법 등의 기술을 하나하나 고찰하여 중국 전근대 벼농사 방재(防災) 지식에 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였다.

본서는 명청대 벼농사의 주요 농기구인 ‘철탑(鐵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인구 증가에 따라 식량 생산을 위한 경작지 면적이 확대되어야 했다. 이

에 축산업 특히 소 사육[에 이용되는 토지 면적]이 축소되었고, 벼농사에서 사람의 노동력이 소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철타”이라는 인력을 쓰는 도구가 명청 시기 벼농사에서 [축력 중심의] 강동 쟁기(江東犁)를 대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리보중(李伯重)을 대표로 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학파” 역사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철타”이 명청 시기 강남 지역 벼농사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은 강남 토양의 점중(粘重)한 특성에 대한 주체적인 기술 적응의 결과가 결코 아니었으며, 오히려 경우(耕牛)의 감소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역설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청대 문헌에 등장하는 벼 이앙 도구 “시오(薊梧)”를 살펴본다. 현장 조사와 함께 그 명칭, 분포, 작동 원리를 고증하여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벼 이앙 도구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양마(秧馬)”가 아니라 “시오”임을 주장하였다.

명청 시기 남방 사대부들은 북방 지역에 벼 재배를 확산시켰고, 남방의 논농사 기술과 지식도 북방으로 전파하였다. 그 결과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인 논(水田)을 벼 재배용 논(水稻田)과 동일시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이 두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혼용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고증을 통해 “논(水田)”이라는 단어가 북방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물을 공급하여 농사짓는 땅을 의미할 뿐, 원래 벼나 다른 수생 작물 재배와는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또 이 책에서 청대 북방의 벼 재배 사례를 들어 “먹거리의 계급성(class nature of food)”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북방 민중들이 쌀 먹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고, 이는 일정 부분 북방지역의 벼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이 책이 주로 논의하는 지역은 강남과 강서(江西)다. 이 점은 해당 지역의 유구한 벼농사 역사와 다수의 문헌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외에도 이 책에서는 중국 영남(嶺南) 지역(광둥·광시·하이난)의 벼농사를 환경사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송대의 인구 남하와 함께 영남의 벼농사도 크게 발전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강남 지역의 벼농사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동시에 이 책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 벼농사 문화 교류도 다루고 있다. 선진(先秦) 시대에 시작된 중국과 동남아의 교류는 당송 시대 이후 조선 및 항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특히 정화(鄭和)의 원정 이후 더욱 긴밀해졌다고 하였다. 동남아 각국은 중국에서 전래된 벼농사 문화를 수용하는 동시에 자국의 벼농사 문화도 중국에 전하였다. 이렇게 중국과 동남아는 공통적

이면서도 각기 다른 벼농사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이 책은 벼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량기(雨量器)의 역사도 자세히 정리하고, 또 중국에서 이 기구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된 원인도 분석하였다.

『중국 벼 역사 연구』는 출판 후 두루 학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의 영어판은 2022년 11월 로열 콜린스 출판사(Royal Collins Publishing Group)에서 간행되었다. 폴란드어판은 2023년 폴란드 최대의 과학 출판사인 아담 마츠샤웁(Adam Marszałek)에서 출간되었다. 2023년에는 브라질의 한 출판사가 중국 농업출판사와 번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포르투갈어판을 준비 중이다. 최근에는 이 책의 베트남어판도 출판 지원을 받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